



[낙농생산] 호주, 수요 회복으로 원유생산량 증가세

- 2021/22년 원유생산량 2% 증가 전망



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, 호주에서는 유제품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원유생산량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(DA)가 발표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, 7월 1일부터 2021/22년 원유생산시즌이 시작되면서 습한 날씨에 원유생산량 증가가 주춤했으나 최근 양호한 날씨를 되찾으며 이번 시즌 생산량이 2%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.

또한, 우유 및 유제품 판매량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며 수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원유생산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. 특히 호주 가정의 98%가 정기적으로 우유를 구매하는 등 견고한 수요로 농가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한편,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원유생산은 물론 유제품 수출입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 < 출처 : ruralnewsgroup.co.nz, 9월 29일 >

[업계동향] 캐나다판 K-Milk 사업 참여 확대

- 유명 피자체인, 144개 점포에서 'Blue Cow' 인증 사업 참여



캐나다판 K-Milk 사업인 'Blue Cow' 로고 인증 업체가 확대되고 있다.

지난 2016년 자국산 유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캐나다낙농가협회(DFC)가 시작한 'Blue Cow' 인증 제도를 통해 100% 캐나다산 원유를 사용한 8,700개의 유제품은 물론 500여개 브랜드와 레스토랑 체인점이 인증을 받았다. 또한,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이 로고를 인지하고 있으며 인증 제품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러한 가운데, 최근 유명 피자체인인 피자노바(Pizza Nova)도 온타리오주 북부지역에서 운영 중인 144개의 점포에서 100% 캐나다산 우유를 활용해 만든 치즈를 사용하며 'Blue Logo' 인증 사업에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.

업체관계자는 “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한 낙농가들의 노력과 헌신을 보여줌과 동시에 차별화된 맛을 선사하게 될 것”이라 전했다. < 출처 : perishablenews.com, 9월 21일 >

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